

국민의힘, 호남반도체 투자기업 현장 경영도 ‘시비’

최태원 공공항 방면 ‘정부압박’ 규정…국감 출석 요구
민주 “투자 의구심 없앤 방문…국회가 기업 협박” 질타

국민의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했다. 정부·여당의 압력에 떠밀려 현장을 찾았다는 주장인데, 최 회장을 향해 정치적 상황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오히려 기업을 협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투자를 기다리는 호남 주민들에

게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며 반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차 주장했다. 구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와 관련해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민 시장의 공개 발언이 최 회장의 현장 방문을 이끌어 낸 압박이었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당시 “SK가 모 의원실에 호시 호남 반도체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나 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약 올리는 일이고, 진짜로 모욕당하는 것은 통합특별시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앗 뜨거워’ 하고 현장을 방문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의 현장 방문과 국감 출석 문제를 연결했다. 그는 “국감이 한창인데 국민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최 회장이 민 시장 한마디에 달려간 것은 국회와 국민을 약 올리는 행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세상 이치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최 회장님, 어느 구름에 해가 있을지 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발언하면서 여당 의원의 반발을 샀다.

전남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전형적인 협박이다.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잘하라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항의했다. 정부의 기업 압박을 비판한다면서 정작 야당이 기업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호남 주민들이 최 회장의 방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 호남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은 반도체 투자가 대규모로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최 회장 방문은 그

의구심을 없앤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방문이 투자 실현 여부를 걱정하는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기업가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국회가 언급하면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국회만 바라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 회장 방문을 정부·여당의 기업 압박 사례로 내세워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기업인의 호남 투자 현장 방문까지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2일 오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예고된 전남광주 동구 충장동 광주극장 내부에 옛 극장의 정취가 남아 있다.



▶본

‘민족자본’ 광주극장, 국가유산으로 역사적 가치 인정

국가유산청, 지정 예고…보존가치·희소성 등 인정
1950~1960년대 건축 공법…문화관광 활성화 기대

광주극장이 역사적·문화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12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광주극장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 운영한 극장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단관극장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성과 희소성이 크다.

특히 광주극장은 수평 곡선 콘크리트 처마를 활용한 현관 캐노피 구조로 당시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1950~1960년대 건축에서 활용된 공법이 담겼다.

또 1968년 화재 이후 재건축된 건물이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작성됐던 일련의 기록들에서 당시 건축적 정황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하층 객석, 영사공간, 곡선형 처마를 중심으로 한 전면 파사드에서 당시 지역 극장 건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충장동5가 62-9에 위치한 광주극장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면적 999.4㎡, 연면적 2264.85㎡로 구성됐다.

이번 예고는 30일 동안 진행되며,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된다.

동구는 앞서 고흥사랑기부제 기금사

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2억2000만원을 투입, 기존 2K(2000픽스) 영사기와 스크린을 최신식 4K(4000픽스)로 교체했다.

광주극장은 지난해 9~10월 걸쳐 전남광주특별시(옛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의 1·2차 심의를 원안 통과했고, 같은 해 11월 국가유산청에 ‘광주극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 5월21일 국가유산청의 전문가 현지 조사 당시 광주극장의 보존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2일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지정가치 심의가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단순 건축물 보호를 넘어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광주극장을 알리고, 충장로 상권, 문화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이사는 “극장을 응원해 주신 시민들의 힘이 큰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광주극장을 이용해 주신다면 극장에 대한 자긍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영되는 영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매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91주년 영화제가 열리는 만큼 영화제와 함께 광주극장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구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전남도청 구 본관, 광주서석초 본관·별관·체육관, 조선대 본관, 조선대 부속중학교 구 교사,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 전남대 의과대학 구 본관 등이다.

송태영 기자 styl1235@gwangnam.co.kr

민형배 시장, 서남권 현안 직접 챙긴다

무안청사 상시 집무…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2일부터 무안청사를 중심으로 상시 집무에 들어갔다. 서남권의 중증·필수의료 공백과 공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반도체와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조선산업을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곳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직접 가져가겠다”며 무안청사 상시 집무 방침을 밝혔다.

출발 100일을 넘긴 통합특별시의 성과를 지역 전역으로 넓히기 위해 서남권 현안을 현장에서 살피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료와 교통, 산업 분야의 주요 과제를 챙길 계획이다.

우선 서남권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항 이전은 무안군민의 뜻을 살피면

서 이천지역 자원계획을 구체화한다. 상생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회를 서남권으로 넓히는 데 무게를 뒀다. 무안 국가산단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육성해 통합특별시의 산업 기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 각 지역에 보유한 자원과 산업을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해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영암·목포의 조선산업 기반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어디에 살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라며 “산업의 성장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무안청사 상시 집무를 통해 서남권 현안 해결과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연결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북구의회 교섭단체 지원 조례안 또 무산

손혜진 의원 “민주당 서명 못 받아…논의 기회 박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수당 의원들의 교섭단체 지원 조례안이 또다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1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소속 손혜진 의원은 이날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가 무산된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북구의회는 기본조례에 따라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교섭단체 ‘의정혁신’을 꾸린 상태다.

손혜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역할과 협의 방식, 지원 기준과 절차, 관련 예산의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으며,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 예산 지원과 공개, 구성요건 변

동 가능성 등 다시 제기된 우려를 겹쳐서 보완, 의원발의에 필요한 추가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발의가 무산됐다.

손혜진 의원은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의회의 절차이자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여부를 넘어 의회가 서로 다른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에 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미 존재하는 교섭단체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의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끝까지 듣고 토론한 뒤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미래차·의료산업 투자 공간 확보 지정도 준비

▶1면에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미래차와 의료산업 분야의 투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지정도 준비한다. 대상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338만㎡와 의료특화 일반산업단지 46만㎡ 등 총 384만㎡다. 시는 이들 산단에 대해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마칠 방침이다.

현재 확대를 추진하는 면적은 함평·장성과 미래차·의료산단을 합해 836만㎡다. 다만 함평·장성권역은 내년까지 지정 완료를 추진하는 반면, 미래차·의료산단은 같은 기간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별 추진 단계는 다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서남권 반도체 특화단지의 핵심기업과 협력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반도체·미래차·의료 등 전략산업의 투자 기반을 넓힐 계획이

다.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요가 늘면 통합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 입주 공간 확충과 함께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장 효과를 지역 전역으로 연결하는 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한다. 광주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동부권의 소재·부품 산업, 서부권의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핵심이다. 권역별 산업 기반을 연결해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종사자와 가족이 생활할 배후 주거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산정지구를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운 가족주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의료·문화시설을 갖춘 30분 생활권 중심의 다핵형 배후주거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확보에 맞춰 근로자의 주거 수요와 가족의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세계제섬박람회, 한글날 연휴 32만명 관람 누적 113만명…재즈·뮤지컬 공연에 김밥·소금 축제도

2026여수세계제섬박람회가 한글날 연휴 사흘간 32만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누적 관람객 113만명을 넘어섰다. 조직위원회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여수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 무료입장을 통해 관람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9~11일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3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113만명을 돌파했다.

연휴 기간 주행사장에서는 매일 저녁 공연이 펼쳐졌다. 9일 여수 재즈 페스티벌에 이어 10일에는 방송인 박경림과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더빅쇼(THE BIG SHOW)’가 열렸다. 이날 저녁에는 미남크루즈 불꽃놀이도 진행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가나불타의 ‘아일랜드 프렌즈데이’ 공연이 관람객을 맞았다.



먹거리 행사도 이어졌다. 10일 주행사장 광장과 잔디광장에서는 수협중앙회 수산물 특별 할인전과 전복계란김밥 시식이 진행됐다. 부행사장인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는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이 사흘간 열렸다.

조직위는 재개장과 함께 선보인 국제교류성의 17개 해외 지방정부관과 해양생태성 수족관, 가을꽃으로 단장한 행사장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김정관 장관’서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의 입지 관련 요구사항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기업의 투자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기업

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은옥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김경관 산업부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만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이 원하는 부지가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